우암학원 창학66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reat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74호 1판 (음력 5월 23일) 2016년 6월 27일 월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개헌 전원 찬성…대통령 중임제 선호

광주일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전수 조사

권력구조, 대통령 중임제 8·분권형대통령제 5·내각제 4명

개헌 시기 11명 "내년 대선 전"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중임제를 가장 선호했으며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더 많았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지난 25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설문 결과, 광주지역 8명과 전남지역 10명 등 18명 국회의원 모두가 개헌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반드시 고쳐야할 일부 조항만 수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전제로 개헌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18명 중 8명의 의원(광주 3명, 전남 5명)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했고 5명(광주 3명, 전남 2명)의 의원이 의원내각제 요소와 대통령제 요소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 즉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했다. 또 나머지 4명(광주 1명, 전남 3명)의 의원은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했다.

장병완 의원은 개헌의 시대적 당위성 마련 등이 우선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로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응답,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같은 당 박준영 의원은 정부통령제를 근거로 한 대통령 중임제를 선택했다.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개호 의원은 "일본식 내각제에 찬성하나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고 우선 이원집정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즉 궁극적으로는 일본식 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18명 국회의원 중 11명이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7명은 대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 의원 8명 중 5명은 '대선 전', 3명은 '대선 후'를 선택했고 전남 의원 10명 중 6명은 '대선 전', 4명은 '대선 후'를 택하는 등 박빙의 차로 '대선 전 개헌' 주장이 우세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주승용 의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안이 마련되더라도 공고, 의결, 국민투표 부의 등 최소 100일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대선 직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영 의원은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고 당선 후 첫 해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탄력'

동·남·북구 선거구 획정때마다 조정

국회의원들 합의…광주시, 본격 검토

4·13 총선 이후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24일자 1면〉에 따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치구간 경계조정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동철(광산 갑) 의원은 26일 광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경계조정을 논의한 결과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원 국민의당 소속인 지역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광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선거 때마다 조정 대상이 되는 북구(갑) 김경진 의원도 "(출마자들이) 동별 지지성향을 분석해 특정 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선거결과는 예상과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며 경계조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동구는 구도심 공동화 등 영향으로 인구 10만이 무너져 조직, 재정 축소를 우려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구별 인구는 ▲동구 9만9883명 ▲서구 30만6717명 ▲남구 22만2741명 ▲북구 45만749명 ▲광산구 41만557명이다. 자치구간 불균형은 차치하더라도 총선 때만 되면 의석수 유지를 위해 일부 행정동이 다른 구로 편입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지난 총선에서도 인구 하한선을 밑도는 동구가 남구 6개 동과 합쳐져 동남을 선거구가 등장했으며, 인구가 많은 북구을 일부 동은 북구갑으로 옮겨갔다.

이런 현상에 행정·정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경계조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줄곧 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미봉책이 이어졌다.

선거가 임박할 수록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직후인 지금이 논의에는 최적기라는 반응도 있다. 광주시도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경계조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구 변동을 감수해야 하는 시의회 등 지방의원들이나 일부 주민 반발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구,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플라타너스 그늘 피서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기록하는 폭염 속에 26일 광산구 송산동 송산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계 정치·경제 '격랑'

영국, EU 탈퇴 … 한국 경제에도 큰 파장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세계 5위 경제 대국 영국이 EU에서 43년 만의 탈퇴를 선택하면서 국제 정치·경제 지형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14면〉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래 최저로 떨어졌고, 엔화가치는 폭등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EU를 비롯한 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회의를 소집하는 등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캐머런 영국 총리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치러진 EU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개표 결과, 382개 개표센터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탈퇴 51.9%, 잔류 48.1%로 최종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650만명 중 72.2%가 참가한 가운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EU를 떠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1741만명이 'EU 탈퇴를 선택했다. 'EU 잔류'를 선택한 국민은 1614만명이었다.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EU에서 이탈하기로 선택, EU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이사회와 2년간 탈퇴 협상에 들어간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해야한다. EU는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이탈상황을 맞게돼 회원국이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줄어든다. 영국의 탈퇴에 따른 '이탈 도미노' 우려와 함께 EU 위상과 지형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EU를 받쳐온 삼각축이다. 또 EU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하고, EU 분담금도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낸다. 영국 국내적으로는 EU와의 재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쇄적으로 EU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경제도 사정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스코틀랜드가 독립 재추진에 시동을 걸고 이는 북아일랜드나 웨일스의 독립 움직임으로 이어져 영연방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아셈 청년 창조산업 네트워크 거점'으로

아셈 문화장관회의 폐막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문화장관회의가 지난 24일 사흘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의 유산으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셈 청년 창조산업 네트워크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화전당에서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장성명을 통해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증대는 각국의 대화와 협력 채널 구축은 물론, 창조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3개의 분과별 워크숍에서도 다양한 문화와 창조산업,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2018년 차기 회의 개최국은 불가리아로 결정됐으며, '첨단기술과 창조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1에서 각국 대표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산업을 선도하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세계 '문화수장'들에게 광주의 문화저력과 비전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재건축조합장 인가 '오락가락' ▶6면
KIA, 막강 선발이 살아났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